



인천AG 통역자원봉사자 벌써 100여명 이탈

인천AG 터질 게 터졌다

“처우·업무환경이 처음 약속과 너무 달랐다”
밤늦게 끝나는 경기 추가 교통비 지급 누락
전체 509명중 20% 이탈...통역업무 초비상
의전·연락부서 등 각팀 핵심 인력도 공백

**본지
단독**

출발부터 빼겨거리고 있는 2014인천아시아게임이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다.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산소 같은 역할

을 맡은 통역전문자원봉사자의 인력이탈이 개막 5일 만에 이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 단독 확인결과 국제협력 업무에 배치된 통역전문자원봉사자 509명 중 23일까지 100여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그만뒀다. 전체 인원의 약 20% 수준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선수단을 책임지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의전, 연락부서 등도 각 팀에 배치된 통역전문자원봉사자들의 이탈이 계속돼 정확한 인력 숫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통역전문자원봉사자는 “처우와 업무환경이 처음 약속과 너무 달랐다. 도저히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담당자는 “학교수업 등 개인사정 등으로 인원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통역전문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을 시작해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1145명을 선발했다. 조직위는 이들을 ‘대회의 얼굴’이라고 알리며 국제대회 및 국제매너, 근무자세 등의 교육도 진행했다. 참가 45개국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은 더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공을 들여 선발한 대회 핵심인력이지만 초반부터 인원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통역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이미 시작됐다. 유도의 경우 아랍어 통역이 나타나지 않아 영어구사가 가능한 다른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 참가국에 여러 공지사함을 전달하는 부서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대회시간, 셔틀버스 운영 변경 등을 서둘러 공치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역전문자원봉사자들은 다른 통역자원봉사자들에 비해 담당 국가 언어구사능력이 매우 뛰어나 급히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역전문자원봉사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참가국 선수단 규모만 1만3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대회진행에 있어 그 비중이 상당하다.

인력이탈의 원인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업무와 지원부족 탓이다. 통역전문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재능기부 및 경험 쌓기 등을 위해 지원했지만 경기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종목의 경우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대회 셔틀버스가 부족해 추가 교통비를 개인이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역전문자원봉사자들은 일반 통역자원봉사자들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인천AG 사격계의 ‘만수르’가 떴다

남자 10m 공기소총 동메달 인도의 빈드라 아버지가 인도 부호...집안에 개인사격장도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서 ‘사격계의 만수르’가 떴다. 주인공은 23일 육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187.1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건 아브히나브 빈드라(32·인도)다.

빈드라는 인도의 국민적 영웅이다. 2008베이징올림픽 이 종목 세계 정상에 섰다. 인도는 단체종목 하키에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종목 올림픽 금메달은 빈드라가 최초였다. 이날 육련국제사격장에는 빈드라를 취재하기 위해 인도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특히 베이징올림픽 당시 빈드라는 거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아시아게임 3연패를 달성한 한화그룹 김승연(62) 회장의 아들 김동선(25·세종시승마협회)과 닮은꼴이다. 빈드라의 아버지(아프지트 싱 빈드라)는 인도 펀자브 지역의 최대 수출업자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아들

을 위해 당시 500억원 상당의 5성급 호텔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인천아시아게임을 취재하고 있는 인도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미하르 바사브다 기자는 “빈드라의 집안은 엄청난 규모의 식품유통·수출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빈드라는 자신의 자택 안에 개인사격장을 갖고 있고, 대표팀이 아니라 독일 출신의 개인 코치에게서 지도를 받는다. 호텔 얘기는 좀 과전된 것 같은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형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혼인데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다. 빈드라의 아버지는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바란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또 한번 인도 취재진 앞에 선 빈드라는 소탈한 모습이였다. 안면이 있는 기자에게 자신이 시상식 때 받은 꽃다발을 선물하고, 후배 선수를 가리키며 “다음 올림픽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정원 앞에 사격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격을 사랑한다는 사실”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인천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한마리 새처럼 인천아시아게임 북한 싱크로나이즈 스윙팀 대표 선수들이 23일 인천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프리클임비네이션 결선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북한 선수들은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에 이어 아쉽게 4위를 차지했다.

오인영 “여자크리켓대표팀 존속되면 좋겠다”

아마골프선수서 전향...대표팀 주장까지
3월 첫 훈련...“선수들 도전정신에 눈물”

한국크리켓은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서 처음으로 남녀국가대표를 구성해 출전했다. 특히 여자대표팀은 올 3월에서야 선발돼 6개월여의 훈련 끝에 이번 아시아게임 무대에 섰다. 아시아게임을 위해 ‘갑조’된 팀이기에 메달권 전력은 아니었다. 여자대표팀은 예선 1·2차전에서 중국과 홍콩에 잇달아 패하며 목표도 했던 1승에 실패한 채 인천아시아게임 일정을 마쳤다. 비록 2경기만의 퇴장이었지만, 이들의 도전정신과 열정만큼은 여느 금메달리스트 못지않았다.

여자대표팀 주장 오인영(25)은 6개월 전까지 골프 세미프로 자격을 얻기 위해 훈련하던 아마추어골프선수였다. 그러나 크리켓의 매력에 푹 빠져 온몸을 내던졌다. 그녀는 “근대5종을 하다가 크리켓을 시작한 친구 박진습의 추천으로 크리켓을 하기 시작했다. 서 있는 공을 치는 골프

를 하다가, 움직이는 공을 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크리켓에 금세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여자대표팀은 인천 연희크리켓경기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훈련장소도 없어 송도LNG 야구장과 인근 축구장을 옮겨 다녔고, 이마저도 경기장이 비었을 때나 훈련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 오인영은 “훈련시간 변동이 심해 점심을 오후 3~4시에 먹는 일도 허다했다. 하지만 함께 크리켓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선수들 모두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크리켓대표팀은 존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시아게임 출전이 이들에게는 일장춘몽이 될지도 모른다. 오인영은 “대표팀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2경기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 존속이 된다면 기꺼이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오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자대표선수들은 23일 해산해 각자 생활로 돌아갔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hop@donga.com 트위터@shopwak15

배드민턴 ‘에어컨 바람조작’ 결백 이면의 망신

“배드민턴 경기장서 에어컨 바람을 조작했다고?”

일본에서 제기해 중국까지 퍼져간 2014인천아시아게임 배드민턴 에어컨 바람 조작 의혹은 진실을 파헤칠수록 같은 결과가 나온다. 조작은커녕 조절도 어려운 시설은 트립과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지만 뒤집어보면 망신과 창피함이 가득 남는다.

일본배드민턴대표팀 단식 에이스 다고 겐이치는 21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한국과 남자단식전 8강전에서 패한 뒤 “에어컨 바람이 강해 당황했는데 상대(손완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이튿날 요미우리신문이 이를 보도했고 중국 등 해외언론에 퍼졌다. 22일 경기를 마친 모든 선수들은 ‘에어컨 바

람’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다고 겐이치의 발언 1시간여 후 한국대표팀 에이스 이용대도 비슷한 내용을 한국 취재진 앞에서 털어놨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유연성은 세계랭킹 4위 엔도 히로유키-하야카와 겐이치와 경기에서 무척 고전했다. 1세트를 15-21로 내줬는데 유독 상대 코트 라인을 넘어가는 아웃이 많았다. 다고 겐이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용대는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가벼워 매우 예민한 종목인데 에어컨 바람이 강해서 초반에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 22일 중국과 여자단식전 결선에서 패한 대표팀 단식 에이스 성지현도 “에어컨 바람은 배드민턴 선수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고 말했지만 패배를 ‘바람’

방송 카메라 등 전력 가동 문제가 원인
조직위 변압기 등 전기 설비 보강 촉구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 만약 조작이 이뤄졌다면 이용대와 성지현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까닭이 없다.

확인 결과 계양체육관은 에어컨의 풍속,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배드민턴 경기장으로는 매우 치명적이다. 계양체육관은 인천아시아게임을 위해 최신식으로 건설됐지만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아닌 다목적경기장이다. 평소엔 배드민턴 배구 핸드볼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따라서 에어컨의 풍속과 풍향에 민감한 배드민턴 경기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에 영향을 끼칠 소지는 있는 셈이다.

그렇하다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제기한 ‘에어컨 바람 조작’ 의혹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어 특정 코트가 불리할 수 있지만 배드민턴은 세트 마다 한 번씩 코트를 바꾸기 때문이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한국대표팀 이득춘 감독은 대회시작부터 수차례 “에어컨을 차라리 끄고 경기하자”는 요청을 했었다. 에어컨이 경기에 영향을 줄 경우 심판은 작동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국제심판 모두 그 정도 수준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에어컨 바람 논란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전 경기는 주관 방송사에 의해 아시아 전역으로 중계되고 있다. 수십 여대의 카메라와 장비가 가동돼 전력이 매우 불안했다. 그 영향으로 에어컨 가동도 일정치 않았다. 그 결과 코트 위 모든 선수들이 혼란을 느꼈다. 조직위원회는 급히 변압기 등 전기 설비를 보강하는 촉구를 벌이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 인천AG 세팍타크로 메달 기대주 심수연



세팍타크로 여자대표팀 심수연이 21일 훈련도중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그는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반드시 정상에 올라 돌아간 아버지에게 메달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 박상준 기자

“아버지 영전에 메달 바치겠다”

임투병 간호하다 아버지 위해 세계선수권 출전
귀국하는 날 숨겨...“사랑한단 말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했었다면...(눈물).”

그녀는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쉬이 말문을 열지 못했다. 뚜렷한 윤곽에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녀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하며 눈물을 흘렸다. 인터뷰조차 조심스러웠던 그녀.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 듯 했다.

● “사랑해요” 끝내 전하지 못한 딸

아버지는 말수가 없었다. 고지식했던 딸과는 대화조차 쉽게 섞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저 당신의 표현이었고,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같이 찍은 사진도 많지 않다. 하지만 딸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툰 사랑을 이해하고,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평소 딸이 출전한 세팍타크로 경기를 보고 싶어 했다.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그날만큼은 가끔 서툰 웃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암이라는 고약한 녀석과 싸우고 있었다. 지난 7월 출전하기로 한 전국 남녀종별 세팍타크로대회 무렵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딸은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병상을 지켰다. 하지만 좋지 않은 몸 상태 속에서도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아버지의 뜻이었고, 괜찮아 질 거라는 믿을 때문이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병세가 호전됐다. 엄마는 아버지가 운동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딸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8월 태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킹스컵)에 출전했다. 레구(3인제)와 팀 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비록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들고 귀국하는 길, 갖 비행기에서 내린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사경을 헤맸고, 고모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 딸은 “빨리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영영 그 말을 전할 수 없게 됐다.

● 아버지의 영전에 메달을

아버지는 그렇게 운명을 달리 했다. 딸은 아버지가 가는 마지막을 보지 못해 아직도 한스롭고 눈물부터 치민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2014인천아시아게임. 딸은 아버지를 위해 뛰든다. 29일 아버지의 49세에 앞서 28일 팀 경기 결선전이 열린다. 대회 중이라 고향인 충남 서천 49세에 참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반드시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허리가 좋지 않아 은퇴를 고민했던 불과 몇 개월 전은 잊혀진 과거다. 지금은 오로지 메달을 위해 전력투구할 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며 뛰고 또 뛴다. 아버지 영전에 메달을 바치려 맘을 흘리는 그녀의 이름은 세팍타크로 여자대표팀의 심수연(26·부산환경공단)이다.

인천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